

『全唐詩』에 나타난 모란꽃 묘사 분석*

배다니엘**

目 录

- I. 서론
- II. 『全唐詩』 중의 모란 관련 시가와 唐代 모란 애호 풍조
- III. 『全唐詩』에 나타난 모란 시가 내용 분석
 - 1. 풍요롭고도 아름다운 자태 칭송
 - 2. 唐代의 모란 애호 문화 언급
 - 3. 비애나 신세 한탄의 감정 투영
 - 4. 위정자나 시류에 대한 풍자와 비판
- IV. 결어

I. 서론

牡丹은 唐代 이전까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지만 唐代를 거치면서 왕후 귀족들 사이에서의 감상을 필두로 대중들에게 보급되어 큰 인기를 누리게 된 꽃이다. 황실에서 애호했던 꽃이었기에 권력과 권위를 가미하는 상징성을 얻게 되었고 비싸게 거래되었던 꽃이었기에 부귀와 풍요의 이미지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모란은 唐代에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富貴’, ‘榮華’, ‘豐饒’, ‘美人’ 등의 이미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고귀한 위엄과 품위를 지닌 ‘花中之王’의 칭호와 영예도 얻고 있었다. 唐人들은 모란을 하늘 아래 둘도 없는 미녀라는 뜻인 ‘國色天香’이라고 부르거나 ‘꽃 중의 왕’이라는 의미인 ‘百花王’, ‘萬花王’, ‘花王’ ‘花后’ 등으로 부르면서 감상하고 즐기는 것을 중요한 풍속으로 여

* 이 논문은 2017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지역문화학과 교수

겼으니 모란은 다른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애호를 받은 꽃임에 틀림 없다. 서구에서 장미가 꽃의 여왕으로 일컬어지는 것과 비교하여 牡丹은 가장 귀하고 풍요로운 이미지로 중국을 대표하는 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란은 唐代의 번영과 함께 풍부한 미감을 발전시켜 나간 꽃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唐代에 모란을 묘사한 작품은 모란 애호 문화를 반영하며 唐代 사회상을 담아내기도 하였고, 시국의 변화에 따른 민중의 아픔이나 시국의 비애감을 투영하는 피사체 역할을 해내기도 하였으며, 유별나게 형성된 唐代의 모란 중시 풍조나 사회의 비판 의식을 담기도 하였고, 고독하고 처량한 개인의 신세를 표현하는 데에도 자주 등장하기도 하였다. 唐代와 운명을 함께 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펼쳐낸 꽃으로 이른바 ‘唐代의 시류를 반영한 꽃’, ‘唐代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꽃’의 상징성을 지닌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唐詩에 나타나는 수많은 꽃 중에서 모란만큼 미학적 의미를 지닌 꽃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요한 시사점을 함유한 꽃인 것이다.

본 연구는 봄이면 화사하고도 풍성한 자태를 선보이는 모란이 중국 고전시문에서 어떠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모란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唐代의 의식을 살피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게 되었는데 이는 모란이 실제로 대중 앞에 의미를 갖고 등장하게 된 시점이나 현재 모란의 이미지를 창출하게 된 시점 모두 唐代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牡丹’은 唐詩를 이해하는 단초 중 하나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중국 문학에서 모란의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본 주제에 대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¹⁾ 중국에서는 모란과 연관된 연구 논문들이 여러 편

1) 그간 국내에서 발간된 ‘牡丹’ 관련 연구논문으로는 신정수, 「모란의 중국 표상-고대 동아시아 모란 문학 비교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20집, 2012. 5.)이 있다. 그밖에 모란이 新羅에 전해지게 된 상황이나 선덕여왕과 신라인의 반응을 고찰한 논문으로 이윤호, 「서라벌의 꽃나무 이야기」, (『숲과 문화』 10권 37, 2001.), 김창용, 「선덕여왕과 모란고사 고」, (어문연구, 35집, 2010. 12.) 등이 있고, 모란 문양이나 복

출간되어 중국인의 모란 애호 의식이나 모란 문화, 모란 시가의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지만²⁾ 唐代에 나온 모란과 관련된 시가에 대하여는 더욱 세밀하게 연구하고 정리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에 세밀함을 추가하여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에 나오는 모란 관련 작품을 개괄해보고 唐代 시가에 나타난 모란 묘사양상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모란 시가의 미학적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唐代 시가에서 모란을 묘사한 작품이 지닌 내용적 특성과 미학적 의미를 정리하는 것은 중국 역대 작품에서 언급된 모란에 대한 전반적 연구를 선도하는 기초적 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II. 『全唐詩』 중의 牡丹 관련 시가와 唐代 牡丹 애호 풍조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을 보면 모란은 唐代 중에서도 盛唐代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시가의 제재로 활용된 것이 발견된다. 唐代의 모란 애호의식과 ‘모란’이 지닌 꽃 위상에 비해 작품에 등장한 시기는 비교적 늦은 것이라 할

식과 관련하여서는 김재임·박춘순, 「중국의 모란문양 연구」, (복식, 44집, 1999.), 박혜성, 「조선시대 민화에 나타나는 모란의 조형분석과 색채 연구」, (한국꽃예술학회지, 2006.), 유예림, 「조선시대 모란도의 색채특성과 재현기법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논문, 2010.) 등의 여러 편 논문이 출간된 바 있다. 중문학 방면에서 모란을 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이라 하겠다.

- 2) 그간 중국에서 발간된 ‘모란’에 대한 연구는 鄒巖, 「牡丹折射下的唐代社會文化心態」, (北京: 北京林業大學學報, 2008. 9.), 楊靜, 「唐宋牡丹詩與牡丹文化」, (荷澤: 荷澤師專學報, 2002. 8.) 등의 모란과 唐代 문화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들, 李暉, 「唐京城牡丹事象考索與反思」, (榆林學院學報, 2015. 9.), 楊艾明, 「唐代詠洛陽牡丹詩研究」, (哲學文史研究, 2016. 제10기.) 등의 모란과 唐代 지역에 관한 연구 논문들, 路成文, 「唐宋牡丹詩詞的主題嬗變及其歷史文化內涵」, (閩江學刊, 2009. 6.) 등의 모란과 연계된 시사에 주제의식 연구들, 杜貴晨, 「全唐牡丹詩概觀」, (銅仁學院學報, 2015. 3.)을 비롯한 당대 모란시를 개괄한 연구들이 있다. 모란에 대한 다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가에 대한 서술이 좀 더 자세하게 분석되었으면 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수 있다. 『全唐詩』의 시가 篇名에서 발견되는 식물을 빈도에 따라 상위 20위 까지 열거해 보면, 楊柳(1095), 竹(394), 松柏(368), 蓮荷(245), 梅(153), 桃(143), 蘭(139), 牡丹(138), 菊(108), 茶(123), 杏(98), 桂(94), 桑(88), 梧桐(79), 櫻桃(57), 石榴(54), 薔薇(51), 蒲(40), 海棠(34), 蘆葦(34) 등의 순으로 나타나³⁾ 모란은 제8위를 점하고 있다. 시제로 많이 활용되기는 했어도 최다 빈도를 보인 것은 아닌 것이다. 시가 내용 중에 나타나는 빈도 또한 세인들이 많이 애호했던 화목 ‘桃’, ‘梅’, ‘菊’, ‘杏’, ‘梨’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보이고 있음이 발견된다.⁴⁾ 다른 화목보다 작품에 늦게 등장하였고 빈도 역시 최다인 것은 아니었지만 모란이 세간에서 ‘花中之王’의 영예를 얻고 있었음은 이 꽃이 빈도를 뛰어 넘는 특별한 애호의 감정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다.⁵⁾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에 등장하는 모란 묘사 작품을 작가와 시기별로 살펴보면, 初唐代에는 모란을 시제로 한 작품이 보이지 않다가 盛唐代에 들어와서 李白(3수), 柳渾(1수), 裴士淹(1수), 王維(1수) 등 4명의 작가가 모란을 제재로 총6수의 작품을 창작한 것이 집계된다. 이를 통해 모란을 제재로 한 본격적인 묘사는 盛唐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이 알려진 것

3) 程杰, 「論中國文學中杏花意象」, (『江海學刊』, 2009. 1.) 분석 참조

4)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을 통해 시가 내용 중에 나오는 꽃을 빈도에 따라 살펴보면 ‘桃(1521)’, ‘梅(1054)’, ‘菊(812)’, ‘杏(397)’, ‘梨(297)’, ‘牡丹(26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5)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에서 발견되는 빈도를 통해 모란이 유명세에 비해 최고의 빈도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唐代에는 모란이 다른 꽃보다 진귀하고 비쌌던 것에도 연관이 있다. 姚合이 「和王郎中召看牡丹」 시에서 “만물 중에 저보다 진귀한 것이 있을까, 천금을 주어도 사서 채울 수 없네. 이제는 더욱 구하기가 어려워졌으니, 선궁에서나 볼 수 있겠네.(萬物珍那比, 千金買不充. 如今難更有, 縱有在仙宮.)”라고 했던 것은 모란이 唐代에는 매우 비싸고 진귀한 꽃이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唐詩 중에 묘사된 모란이 ‘百花之王’의 영예를 얻고 있는 것은 모란이 비싸고 귀해서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쳤기 때문에 ‘富貴之花’의 이미지와 특성을 더욱 얻게 된 것에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宋 周敦頤가 「愛蓮說」에서 “唐代 이래로 세인들은 모란을 아낀다. 또한 말하기를 ‘모란은 꽃 중의 부귀한 것이라’고 한다.(自李唐來, 世人盛愛牡丹. 又曰: ‘牡丹, 花之富貴者也.’)”라고 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기록이라 하겠다.

처럼 李白이 「清平調」 3수를 통해 모란을 노래하기는 했으나 이는 楊貴妃의 미모를 형용하기 위한 재제로서의 활용이었으며 동시기의 杜甫는 모란을 언급하지 않았다. 盛唐代 柳渾의 「牡丹」, 裴士淹의 「白牡丹」, 王維의 「紅牡丹」, 岑參의 「左仆射相國冀公東齋幽居」 등의 작품에서 모란을 노래하기는 했으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들 역시 특별한 의식을 갖고 모란을 찬미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中唐代에 들어오면 화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던 白居易(13수)를 필두로 元稹(7수), 劉禹錫(5수), 王建(3수), 徐凝(3수)을 포함한 총17명의 시인들이 총42수의 모란시를 창작한 것이 집계되어⁶⁾ 中唐代에 와서 시인들 사이에서 모란이 화목 중 주요 제재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알게 해준다. 中唐 시단의 중요인물로 꼽히는 元稹과 白居易가 모란을 적극적으로 묘사하였고 唐代 중 가장 많은 시인에 의해 작품이 나왔다는 점은 中唐에 와서 모란의 위상이 굳건하게 확립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晚唐代로 오면 徐夔(9수)와 李商隱(5수)을 비롯한 총36명의 시인들이 총65수의 모란시를 창작한 것으로 집계된다.⁷⁾ 晚唐代에 와서 모란을 노래한 작품의 창작이 극성을 이루게 된 것이다. 唐 이후 五代에 와서도 모란에 대한 주목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孫鮪(8수), 李建勛(2수)을 위시한 9명의 시인들이 총15수의 모란을 제재로 한 시가를 남긴 바 있다.⁸⁾ 그밖에 생존 시기나

6) 中唐代 시인으로는 여러 수의 모란시를 남긴 白居易, 元稹, 劉禹錫, 王建, 徐凝 외에도 陳標, 韓愈, 李賀, 李正封, 盧綸, 李益, 令狐楚, 陸暢, 裴陵, 權德輿, 武元衡, 薛濤 등의 시인이 각 1수의 모란시를 남기고 있음을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7) 晚唐代 시인으로는 徐夔(9수)와 李商隱(5수) 외에도 吳融, 羅隱, 薛能 등이 각 4수, 唐彥謙, 溫庭筠 등이 각 3수, 段成式, 方幹, 韓琮, 李山甫, 王貞白 등이 각 2수를 남겼으며 그밖에 崔道融, 杜荀鶴, 李咸用, 羅鄴, 裴說, 皮日休, 秦韜玉, 司空圖, 王駕, 王叡, 王睿, 韋莊, 翁承贊, 姚合, 魚玄機, 段益, 殷文圭 등의 시인이 각 1수의 모란시를 남기고 있고, 施肩吾, 張祜, 張蠙, 周繇, 鄭谷, 張又新 등이 시제는 다르지만 모란을 주요 제재로 한 작품을 각 1수씩 남겼음을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8) 五代 시인으로는 孫鮪(8수), 李建勛(2수) 외에도 李中, 盧士衡, 劉昭禹, 謙光, 徐鉉 등이 각 1수의 모란시를 남기고 있고 孫光憲, 花蕊夫人徐氏 등이 모란을 주요 제재로 한 작

이름이 불분명한 唐代 작가 9명이 총10수의 모란 관련 작품을 남긴 것도 특기할 만하다.⁹⁾ 晚唐과 五代에 이르는 동안 모란은 원산지인 북방을 비롯하여 남방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재배되게 되었고 唐代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인들에 의해 주목을 받게 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란은 唐代 시인들의 작품 속에서 ‘花中王’, ‘國花’의 지위를 굳건하게 확립해나가고 있었다.

唐代 전체로 놓고 보면 총75인의 작가가 132편의 모란을 주요 제재로 한 시가를 창작하였고 작품 수로 보면 白居易(13수), 徐夔(9수), 孫魴(8수), 元稹(7수), 劉禹錫(5수) 등이 다작의 순서에 따른 시인들이다. 이밖에 『全唐詩』 전체 총 263곳에 ‘牡丹’이라는 화명이 등장하고 있어 모란이 여러 화목 중 매우 중요한 제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唐代 모란 시가를 창작한 작자와 작품 수를 간략하게 도표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란 시가 작자 수	모란 제재 시가 수	모란 제재 시 비율(%)
初唐	0	0	0
盛唐	4	3	2.3
中唐	17	42	31.8
晚唐	36	65	49.2
五代	9	15	11.4
時代不詳	9	7	5.3
합계	75	132	100

이처럼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에 모란을 제재나 소재로 한 작품이 132수, ‘牡丹’이라는 어휘가 263개나 등장하게 된 것은 唐代를 걸치며 “그 누가 모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랴(何人不愛牡丹花)”(徐凝「牡丹」)라고 할 정도

품을 각 1수씩 남겼음을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9) 생존 시기나 이름이 불분명한 작가로는 竇梁憲, 歸仁, 胡宿, 劉兼, 捧劍樸, 齊己, 文丙 등의 시인이 각 1수의 모란시를 남기고 있고, 卓英英(2수) 唐朝末士(不詳名)(1수) 등이 모란을 주요 제재로 한 작품을 남겼음을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로 모란을 애호한 문화적 배경과의 연관성이 컸다. 모란은 唐初에는 帝王后妃를 위시하여 귀족과 상류층 문인들 사이에서 감상된 꽃이었지만 점차 세간으로 애호의 대상과 범위가 확산되기에 이른다. 柳宗元의 『龍城錄』 기록¹⁰⁾이나 李肇의 『唐國史補』 기록¹¹⁾ 등을 통해 모란은 唐代에 들어와 高宗, 則天武后, 玄宗, 楊貴妃 등의 황실에서 애호했던 꽃이었으며 귀족들 사이에서도 많이 감상되기 시작하였고 盛唐代를 전후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세인들 사이에서 귀한 꽃으로 주목받게 되었음을 파악해볼 수 있다. 唐代 白居易, 徐夔, 孫魴, 元稹, 劉禹錫 등 주요 시인은 물론이고 齊己, 歸仁, 殷益, 謙光 등 여러 方外人士들의 작품에까지 모란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지역적인 면에서도 초기에는 수도 長安과 洛陽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다가 점차 남방으로 재배영역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많은 시인들에 의해 노래되어진 모란은 어느덧 전국적으로 유행되며 세인들 사이에서 ‘國花’의 인기를 누리는 꽃으로 이미지를 굳혀나가게 된 것이었다.

唐代에 모란을 애호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모란이 지닌 꽃 자체의 아름다운 자태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된다. 원래 ‘木芍藥’으로 모란은 초기에는 별다

10) 柳宗元의 『龍城錄』에 보면 “고종황제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두 개의 꽃봉오리를 지닌 모란을 감상하며」라는 시를 지었을 때 오직 上官昭容만이 한 구절을 절묘하게 지어내어 ‘꽃 형세는 벽에 잇대어 있는 친구와 같고, 마음은 향기로 사람을 가로막는 것 같구나.’라는 구절을 남겼다.(高皇帝御群臣, 賦「宴賞雙頭牡丹詩」, 惟上官昭容一聯爲絕麗, 所謂‘勢如連壁友, 心若臭蘭人.’者.)”라는 기록이 있다. 모란이 궁중에서 길러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다.

11) 李肇 『唐國史補』 중의 기록을 보면 “경성에서 귀족들이 노닐 때 모란을 숭상한지가 삼십 여년 되었다. 매년 봄날 저녁이면 거마가 미친 듯이 질주하였고 모란을 찾고 탐하지 않으면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다. 가게나 관청 이외에도 절이나 도관에서 심어 이익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 뿌리에 수만 냥이나 하는 것도 있었다. 원화 말년에 韓弘 中書丞이 장안에 처음 이르렀을 때 처소에 모란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여찌 아녀자들의 취미를 본받겠는가?’라며 명을 내려 모두 잘라버리도록 하였다.(京城貴游, 尙牡丹三十餘年矣. 每春暮車馬若狂, 以不耽玩爲耻. 執金吾鋪官園外寺觀種以求利, 一本有直數萬者. 元和末, 韓令始至長安, 居第有之, 遽命斷去曰: ‘吾豈效兒女子耶?’)”라는 기록이 있어 장안의 귀족들 사이에서 많이 감상되었고 세간에서는 이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귀한 대접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른 관심을 얻지 못하다가 唐代로 오면서 점차 枝葉이 무성하고 꽃송이가 매우 크며 현란하고 아름다운 빛깔과 깊은 향을 지닌 존재로 점차 주목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제왕이나 귀족들이 감상하는 귀한 꽃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종에 따라 각기 화사한 미감을 발하는 꽃 자체의 아름다움이 세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란을 감상하는 행위는 전국적인 유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예물이나 선물로 많이 사용될 정도로 정표의 상징이 되기도 하였다. 穀雨 전후에 피어난 후 약 20일 동안 만개하다 사라지는 모란의 매혹적인 자태는 세인들로 하여금 더욱 애절한 향수를 느끼게 하였으며 수많은 시인들이 이 모습을 작품으로 형상화하게 된다.

唐代에 모란이 귀한 꽃으로 인식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진사 급제한 이들이 꽃을 찾아 감상하는 행사(進士探花)’를 했던 것도 생각해 볼만한 점이다. 五代 王定保가 쓴 『唐摭言』에 의하면 進士에 급제한 이들은 曲江 서쪽에 있는 杏園에서 ‘探花’하는 풍습이 있었다. “행원에서 처음 연회를 열며 이를 ‘探花宴’이라 하였는데 선배 중 약간 덜 뛰어난 자 두 사람을 정하여 보내서 두 거리에서 꽃을 찾아오도록 하였다. 만약 타인이 모란이나 작약을 먼저 꺾어 온다면 각각 벌칙을 내렸다.(杏園初宴, 謂之探花宴, 便差定先輩二人少俊者, 爲兩街探花使; 若他人折得花卉, 先開牡丹、芍藥來者, 卽各有罰.)”¹²⁾라는 기록을 통해 급제한 이들 사이에서 모란과 작약이 귀한 대접을 받고 있었음이 파악된다. ‘牡丹宴’ 행사를 열만큼 모란을 애호했다는 것은 唐代人의 마음속에 ‘杏花’나 다른 꽃이 아니라 ‘모란’이 ‘國花’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唐代에는 모란의 금전적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궁전 뿐 아니라 慈恩寺, 興善寺, 興唐寺, 崇敬寺 등에서도 사원 주변에 모란을 많이 심어¹³⁾ 사원경제에

12) 王定保, 『唐摭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제28쪽.

13) 李昉의 『太平廣記』 권409에 “장안 흥선사 소사원의 모란은 색이 곱고 아름다웠다.(長安興善寺素師院牡丹, 色絕嘉.)”, “장안 흥당사에는 모란 한 그루가 있는데, 唐元和 중에 이천 백 송이가 열렸다.(長安興唐寺, 有牡丹一棵, 唐元和中, 著花二千一百朵.)” 등의 기록이 있으며, 康駢 『劇談錄』에는 “자은사 곡당에는 두 그루의 모란 무더기가 있는데 때

보탬이 되거나 대중들이 절을 찾는 기회를 갖게 하였으며 獻佛花로 활용하거나 그림의 제재로 삼기도 하였다. 모란으로 유명한 사원을 찾아 꽃구경을 하던 세인들의 풍습 역시 唐代 모란의 유행이나 애호의 풍조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全唐詩』에 실린 모란 시가 중 胡宿의 「憶薦福寺牡丹」, 元稹의 「西明寺牡丹」, 張祜의 「杭州開元寺牡丹」 등의 작품을 위시하여 18수가 사원의 모란을 제재로 창작된 것은 이러한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란은 唐代의 번성과 함께 꽃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에 대한 칭송과 애호의 문화를 가중시켜나가게 된 꽃이었다. 盛唐 번영기에 이루어진 창작을 필두로 ‘富貴’, ‘豐饒’, ‘華奢’ 등의 이미지를 굳혀가며 唐代人들의 심미관을 형성시켰으니 모란 시가 중에 자주 등장하는 ‘貴’, ‘貴氣’, ‘富貴’, ‘金’, ‘金蕊’, ‘金粉’ 등의 시어는 이러한 唐代 문화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모란이 唐詩 중에서 ‘富貴’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이면을 보게 되면 다른 꽃보다 사회에 대한 비판이나 세태 풍자의 소재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梅蘭菊竹’을 비롯한 다른 꽃들이 자태의 미감, 품성의 고결함, 애상의 소재 등으로 많이 노래되어지는데 비해 모란은 시대를 반영하고 풍자하는 꽃의 이미지가 강한 것이 비교된다. 모란 꽃 자체의 미감과 함께 唐代에 형성된 ‘富饒’, ‘富貴’의 이미지는 모란을 생각할 때면 배제할 수 없는 문화적 키워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III. 『全唐詩』에 나타난 모란 시가 내용 분석

唐代에 창작된 모란 관련 시가는 대체로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노래되었지

번 오륙백 송이에 달하는 꽃이 열려 번성하고 고우며 향기가 좋아 인근에서 비할 바가 못 된다.(慈恩浴堂院有花兩叢, 每開及五六百朵, 繁艷芬馥, 近少倫比.)”라는 기록이 있어 절에서 기르는 모란이 유명했음을 알리고 있다.

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각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풍취를 지니고 있는 것도 발견된다.¹⁴⁾ 唐代 모란을 노래한 작품은 모란의 화사한 자태를 칭송하거나 이 꽃을 애호하는 사람들의 심리, 唐代의 모란 문화를 언급한 작품, 모란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신세를 표현한 작품, 모란을 통해 통치자나 唐代 풍조를 비판한 작품 등 다양한 내용을 선보이고 있다. 본장에서는 모란을 노래한 시가의 주제에 따라 내용을 분류하여 묘사 양상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풍요롭고도 아름다운 자태 칭송

牡丹은 서양의 장미처럼 긴 세월을 통해 이루어 낸 중국 최고의 꽃이다. 牡丹은 호화롭고 현란한 아름다움과 기품이 장미와 서로 비교되지만 그 꽃 모양이 장려하고 소담스러워 풍요로운 이미지로는 모란이 단연 돋보인다. 노란 꽃술과 자줏빛 비단을 오려놓은 듯 두터우면서 풍성하게 넓은 꽃잎을 소유한 모란의 자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미적인 감각을 느끼게 한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크기, 화사한 외관, 농염한 색채, 봄을 대표하는 향기 등 특유의 여유와 품위로 가장 중국적인 꽃이라는 이미지를 발하고 있는 꽃인 것이다. 『全唐詩』에 실린 시 중 모란의 자태에 특히 주목한 작품을 몇 수 살펴 보기로 한다.

元稹은 西明寺에 심겨진 모란을 보면서 밤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영롱한 기운을 칭송한 작품을 남겼다.

14) 李白의 「清平調」 3수를 위시하여 총 6수에 달하는 盛唐代 작품을 보면 대체로 盛唐 시인들의 적극적인 감상의식과 평화로운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일종의 ‘治世之音’이 반영되어 있음이 보인다. 中唐代에 이르면 모란에 대한 유행풍조가 극을 이루게 되어 이에 대한 묘사나 이러한 풍조에 대한 풍자의 내용이 등장하게 된다. 특히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白居易 등 일부 시인들은 왕조의 번영과 쇠망을 모란의 형상에 담아 ‘寂寞’, ‘서글픔’, ‘영락함’ 등의 기운을 노래하기도 하였고 모란 애호의 광풍 이면에 담긴 쓸쓸함이나 처량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晚唐과 五代를 거치면서 모란은 화려한 옛날이나 唐代의 영화를 추억하는 꽃이 되기도 하였고, 현실 속에서 어찌지 못하는 한계의를 투영하는 꽃이 되기도 하였다.

「西明寺牡丹」(서명사 모란)

花向琉璃地上生 모란은 달을 향해 땅에서 피어 있고
 光風衍轉紫雲英 빛과 바람에 자색 구름 같은 꽃잎 번뜩이며 펄럭인다
 自從天女盤中見 천상의 선녀가 쟁만 같은 달 속에 보이는 듯하다가
 直至今朝眼更明 오늘 아침 되니 눈에 더욱 선명히 들어오누나

밝은 달 아래 피어 있는 자색 모란은 달 속에 빛나는 선녀처럼 몽롱한 미감을 자랑한다. 밤에 핀 모란은 선녀처럼 환상적인 자태를 선보였지만 아침에 보게 된 실물은 더욱 확연한 실체를 선사한다. 허상과 실상을 교묘히 조합한 자태의 묘사가 돋보이니 모란이 주는 미적 흥취가 환상적인 경지에 있음을 느낄 수 있겠다.

모란에 대한 묘사가 특히 많았던 晚唐에 지어진 羅隱의 작품을 보면 ‘花中之王’, ‘傾國之色’ 등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牡丹」(모란)

似共東風別有因 동풍과 특별히 인연이라도 있는 듯
 絳羅高捲不勝春 진홍 비단을 높이 들어 올린 모습 춘심을 이기지 못하누나
 若教解語應傾國 만약 그대로 말을 할 줄 알게 한다면 나라를 기울게 하리니
 任是無情亦動人 무정한 듯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네
 芍藥與君爲近侍 작약은 그대에게 가까운 시종이 되겠지만
 芙蓉何處避芳塵 부용은 어느 곳에서 고운 먼지를 피해 있는가
 可憐韓令功成後 가련하다 韓弘¹⁵⁾은 공이 이루고 난 뒤에
 辜負穠華過此身 고운 꽃을 저버려 이 생명을 흘려보냈나니

동풍에 춘심을 이기지 못하고 붉은 꽃잎을 세상에 선보이는 모란은 가히

15) '韓令'은 韓弘이 中書令(재직 819-822)하였던 것에 들어 성과 직함을 함께 표기한 것이다.

나라를 기울게 할 만큼 빼어난 미모를 지녔으며, 미인을 연상시키는 모란의 자태는 작약이 시종 들게 하고 연꽃을 숨어버리게 할 정도로 ‘花王’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모란이 번성했어도 이 꽃을 모두 잘라버린 韓弘의 일화¹⁶⁾도 있다. 미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거론하면서 아름다움은 알아주는 이가 있어야 진정한 가치를 받을 수 있음도 언급하고 있다.

韋莊은 꽃들을 서로 대조한 다른 詠花詩와 달리 사람을 들어 비교를 가하고 있다. 모란이 지닌 향기를 인품에 비유한 언급인 것이다.

「白牡丹」(흰 모란)

閨中莫妒新粧婦 규중에서 새로 단장한 신부여 흰 모란을 시샘하지 말지니
陌上須慚傅粉郎 모름지기 길에서 만난 何晏도 부끄럽게 하누나
昨夜月明渾似水 어젯밤 밝은 달과 마치 물처럼 혼연일체 되어
入門唯覺一庭香 문을 들어서니 오로지 정원에 하나의 향기만 그득하네

흰 모란을 칭송함에 있어 새로 단장한 규중의 신부나 魏代에 흰 얼굴을 지닌 미남으로 소문나 ‘傅粉何郎’으로 불렸던 何晏도 모두 못 따라갈 정도의 자태를 지닌 존재로 형용한 것이 시선을 끈다. 흰 모란의 자태는 밤이면 더욱 정결하여 빛나는 달빛과 혼연일체가 되고, 그 향기 역시 정원의 모든 향기를 압도하는 절대적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란의 자태, 기백, 향기에 대하여 전반적인 칭찬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晚唐 시인 殷文圭 역시 모란의 자태와 향기를 사람의 인품에 비유한 작품을 남기고 있다.

16) 唐代 韓弘은 과묵하였으나 용기와 지략이 있는 이였다. 明經科에 합격하지 못하자 말타기와 활쏘기를 연마하였다. 憲宗 元和시기에 宣武節度使에 임용되어 공을 세워 許國公에 봉해졌다. 그가 장안의 사저로 돌아왔을 때 “내가 어찌 아녀자와 같은 정서를 본받을 수가 있는가?”하면서 집안의 꽃들을 모두 잘라버린 일화가 있어 羅隱은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며 언급한 것이다.

「趙侍郎看紅白牡丹，因寄楊狀頭贊圖」(조시랑이 붉고 흰 모란을 보고는 양상두를 칭송하며 그림을 보내다)

遲開都爲讓群芳 늦게 피어나 못 꽃들에게 향기를 양보하더니
 貴地栽成對玉堂 귀한 땅에 심겨져 마침내 옥당을 이루었네
 紅艷裊煙疑欲語 붉은 모란은 하늘거리는 연기처럼 마치 말을 하려는 듯 하고
 素華映月只聞香 흰 모란은 달빛에 빛나면서 그저 향기를 훔날린다
 剪裁偏得東風意 꽃을 마음질해 놓은 것은 오로지 동풍의 뜻이었나
 淡薄似矜西子粧 담백하고 옅은 모습 마치 西施가 단장한 듯
 雅稱花中爲首冠 그 우아함은 꽃 중에 으뜸이라 칭할 만하니
 年年長占斷春光 해마다 오랫동안 봄빛을 점유하고 있기를

붉은 모란과 흰 모란을 모두 칭송하면서 趙侍郎이 楊狀頭¹⁷⁾를 칭찬하고 있는 시이다. 수연에서 모란이 다른 꽃보다 늦게 개화하였지만 결국 玉堂을 이루었다 함은 楊狀頭가 화려한 가문 출신인 것을 비유한 것이며, 붉은 모란이 하늘거리는 자태를 지닌 것과 흰 모란이 향기를 훔날리는 것은 楊狀頭의 文彩를 칭찬한 부분이다. 모란을 미인 중 대표라 할 수 있는 서시처럼 ‘花王’의 지위를 지닌 꽃으로 보면서 오랜 시간 봄빛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서사한 것 역시 楊狀頭의 이름이 오래 가기를 기원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晚唐 溫庭筠은 모란이 지닌 매력은 자신의 생활을 협소하게 만들 정도로 대단한 것임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夜看牡丹」(밤에 모란을 보면서)

高低深淺一闌紅 높고 낮은 형태로 진하고 열게 난간에 온통 붉게 피어 있고
 把火慙勤繞露叢 등불 잡고 은근히 바라보니 새벽이슬에 무리를 이루었네

17) 趙侍郎은 명이 光逢이며 唐末에 進士급제하여 吏部侍郎을 지냈고, 楊狀頭는 명이 涉으로 唐末에 장원급제하였지만 唐이 망한 이후에는 趙侍郎과 함께 梁을 섬긴 인물이다.

希逸近來成懶病 晉代 謝庄은 근래에 게으름 병에 걸려
不能容易向春風 봄바람을 향해 쉽게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나니

고요한 새벽 시간에 각각의 크기로 자란 모란 무더기가 저마다 진하고 열은 색을 뽐내며 난간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흥취를 그렸다. ‘殷勤’이라는 어휘로 자신만의 별다른 감상의 묘를 소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希逸’은 평소 병이 많았다는 晉代 謝庄의 字로서, 자신을 謝庄에 빗대어 ‘게으름 병’에 걸린 환자로 치환하였고 이로 인해 외출을 잘 하지 않고 있다 하였다. 모란의 매력에 침잠하여 시선을 외부로 돌리지 않는 자신의 심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정결한 품격을 지닌 꽃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梅蘭菊竹’이 四君子의 지위를 전통적으로 누려왔다면 모란은 唐代에 와서 새롭게 미감이 발견되고 각인된 꽃이라 할 수 있다. 四君子가 주로 문인들의 애호를 받는 남성적인 꽃이었던 것에 비해 모란은 귀족과 서민, 남녀 모두의 애호를 받았던 점이 비교된다. 또한 모란보다 훨씬 오랜 재배 역사를 지닌¹⁸⁾ 芍藥의 경우 모란과 비슷하게 생겼고 모란과 같이 심어 감상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자주 비교되기도 하였다.¹⁹⁾ 모란이 작약보다 먼저 피어나기에 牡丹을 ‘花王’, 芍藥을 ‘花相’

18) 鄭나라의 풍습을 그린 『詩經鄭風』 「溱洧」를 보면 “오직 총각들과 아가씨들은, 서로 즐겁게 웃으며, 작약을 주고받네.(維士與女, 伊其相謔, 贈之以芍藥.)”라는 기록이 있어 『詩經』 시기부터 청춘남녀들이 芍藥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확인했음을 알 수 있다.

19) 牡丹과 芍藥을 비교해 보면 모란은 2미터가 넘는 목본식물이고, 작약은 1미터 안팎의 왜소한 초본식물이라는 점이 차이 난다. 모란은 줄기가 겨울에도 죽지 않고 다음해 줄기에서 새잎이 나는데, 작약은 겨울이 되면 땅 위의 줄기는 말라죽고 뿌리만 살아 이듬해 봄에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온다. 牡丹은 보통 4월 중하순에 개화하는데 작약은 5월 상중순에 개화하니 두 꽃의 개화 시기는 약 15일 정도의 시차가 있는 셈이다. 모란은 잎이 넓고 정면에 약간 노란빛을 띤 녹색이며 작약은 잎이 좁고 정면과 뒷면 모두 짙은 녹색으로 광택이 있다. 모란 잎은 셋으로 갈라지는 형태이고 작약 잎은 홀잎이다. 모란은 꽃 지름이 약 2cm 정도인데 비해 작약은 약 1.5cm 정도로 꽃의 크기가 차이 나며 모란이 작약보다 꽃의 색깔이 화려하고 풍부하다. 전체적으로 모란과 작약을 비교해 볼 때 모란이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면 작약은 여성적인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전통적으로 제왕의 이미지가 강한 것은 역시 모란이었다. 이처럼 모란이 여러 꽃들 중에서 花王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역시 다른 꽃을 압도하는 모란의 풍요롭고 화사한 자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唐代의 모란 애호 문화 언급

牡丹을 애호하는 풍조는 일정 부분 唐代의 번영과 궤적을 함께 하고 있다. 웅혼한 기상을 드날리던 盛唐시대에 제왕들이 궁중에서 모란을 감상한 것을 기회로 모란은 부귀와 번영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安史의 난 이후 중흥을 구가하던 中唐시대에 와서는 귀족들과 서민들 모두에게 풍요의 상징으로 중시되기에 이르렀다. 몇몇 작품을 통해 中唐의 모란 애호 풍조는 사치의 표상으로 변질되기도 하여 편집광적인 심리로 모란을 감상하는 경우도 많았음을 살필 수 있다. 晚唐代에 와서도 모란은 풍요와 부귀의 상징으로 인식되며 애호를 받았으나 盛世의 화려함을 추억하는 매개물이나 심리적 위안을 위한 미적 존재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해지게 된 것을 살필 수 있다. 모란을 애호하는 문화는 唐代의 시대상을 시기별로 알려주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는 셈이다. 몇몇 작품을 통해 모란 애호 풍조와 唐代 사회적 현상의 관계와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盛唐 裴士淹이 지은 다음 작품을 보면 제왕들이 모란을 귀한 꽃으로 인식한 것과 연계하여 세인들 사이에서도 모란에 대한 애호의 감정이 일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

「白牡丹」(흰 모란)

長安年少惜春殘 장안의 소년들은 봄이 다함을 안타까워하고
爭認慈恩紫牡丹 다투어 자은사로 모여들어 자색 모란을 감상하네
別有玉盤乘露冷 따로 옥쟁반 있어 차가운 이슬을 받아놓았는데

無人起就月中看 일어나 달밤에 흰 모란을 바라보는 이가 없나니

자색 모란에 마음을 쏟으나 흰 모란이 지닌 정결한 이미지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풍조를 주목하였다. 붉은 색이나 자색을 띤 모란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화사한 자태에 시선을 두는 세태를 비판하면서도 ‘長安年少’라는 표현을 통해 나이가 어리고 식견이 짧은 이를 비유한 것임을 은연중에 시사하고 있다. 모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열광적인 애호의 문화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中唐으로 오면서 牡丹은 온 국민의 사랑과 애호를 받는 ‘花王’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劉禹錫이 모란 애호의 풍조를 잘 개괄한 시가를 살펴보자.

「賞牡丹」(모란을 감상하며)

庭前芍藥妖無格 뜰 앞의 작약은 요염하나 품격이 낮고
池上芙蓉靜少情 못 위의 부용은 고요하나 정이 적네
惟有牡丹眞國色 오로지 모란만이 진정한 나라의 꽃
花開時節動京城 꽃 피는 시절 되면 온 장안을 들뜨게 하네

芍藥은 화사라고 밝지만 은근미가 떨어져 요염하되 품격이 낮다고 보았고 芙蓉은 연못에 고요히 피어있어 깨끗한 품격은 있으나 도도하여 정이 적다고 보았다. 그러나 牡丹이야 말로 온 나라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외모와 품격 모두 ‘眞國色’에 합당한 ‘花中之王’이라고 보았다. ‘動京城’은 모란의 향기²⁰⁾로 인해 온 경성이 진동할 정도로 들뜨게 된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당시 唐人들의 극심한 모란 애호 문화를 살필 수 있는 표현이 된다.

20) 우리나라에서는 선덕여왕의 고사와 연관하여 모란이 향기가 없는 꽃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실제로 牡丹은 꽃의 자태 뿐 아니라 향기로도 주목을 받는 꽃이다. 蘭草의 향기를 ‘幽香’이라 하고, 梅花의 향기를 ‘暗香’이라 하는 것에 비해 모란의 향기는 ‘異香’이라 한다. (손광성, 『나의 꽃 문화 산책』, (을유문화사, 1996.) 111쪽 참조)

中唐의 白居易 역시 「買花」 시를 통해 세인들이 모란을 다투어 고가에 매입하려 하는 풍조를 언급한 바 있다.

「買花」(꽃을 사다)

帝城春欲暮 장안의 봄이 저물어 갈 때
喧喧車馬度 오가는 거마도 시끄러운 속에
共道牡丹時 사람마다 모란이 제철이라며
相隨買花去 서로 줄지어 꽃을 사러 간다네
貴賤無常價 귀하고 천한 것 정해진 가격도 없어
酬值看花數 꽃송이 수만 헤아려 값을 치른다네
灼灼百朵紅 눈부시게 붉은 백송이 꽃값으로
錢錢五束素 층층히 쌓은 다섯 속 흰 명주를 내라 하네

唐代 長安의 한 꽃시장 풍경인데 모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애호를 보여주는 정경이다. 관상용 꽃을 생필품 명주보다 훨씬 귀하게 여겼다는 기록은 모란을 통한 사치 풍조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처럼 唐代人들의 모란에 대한 애호가 높았다는 것은 모란이 이미 부귀와 영화, 영예와 풍요의 상징으로 세인들의 인식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모란을 감상하는 열기가 강해져서 사치와 과시의 수단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일부 시인들은 모란을 사치와 허영의 상징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柳渾이 모란 숭상의 풍조를 바라보면서 지은 작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牡丹」(모란)

近來無奈牡丹何 요즘 들어 모란을 어찌하면 좋은가
數十千錢買一顆 수만 냥을 주고 겨우 한 송이를 사들인다네
今朝始得分明見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분명히 보게 되었네
也共戎葵不校多 축규화와 비교해서는 별반 차이 없음을

수구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唐代 사람들이 모란을 아끼면서도 돈이 없어 살 수 없는 모순된 심정을 의미한다. ‘數十千錢’과 ‘一顆’라는 숫자의 대립을 통해 애호의 심리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머나먼 거리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始’와 ‘也’자를 시구 중에서 활용한 것은 시인의 마음이 침울한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된다. 시가 전체에 포핍을 가하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모란에 대한 비정상적인 애호를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마음은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것이다.

唐代에 들어와 제왕들의 애호를 시작으로 화사한 외모를 세간에 선보이며 풍요와 부귀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모란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높여가며 사치의 상징으로까지 변모하는 모습도 보였다. 궁중과 민가에서 다투어 심었고 이웃 新羅에까지 ‘牡丹圖’와 함께 씨앗을 보낼 정도로 애호의 의식이 강했던 唐代人の 유별난 사랑을 느낄 수 있겠다.²¹⁾ 그러나 이러한 사치와 애호 풍조는 모란 자체의 특성 보다는 唐代 사회적 부패현상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 한편으로 그만큼 모란의 자태와 품성이 귀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다.

3. 비애나 신세 한탄의 감정 투영

모란은 봄날의 화사함을 표출하면서 제왕의 지위에 걸맞게 온갖 영화를 누리는 꽃이지만 이 꽃 역시 한 달을 못 넘기는 개화시간을 보낸 뒤 영락하게 되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凋落의 애상을 보여주는 것은 봄꽃을 비롯한 여러 꽃들의 공통인 특성이지만 모란의 경우는 그 애상의 정도가 더욱 강렬하였다. 이는 모란이 ‘國花’, ‘花中之王’의 상징으로 인식될 만큼 유난히 화려한 지위에 있다가 짧은 개화시기를 거친 후 凋落해버리는 특성과 연관이 있다. 화려

21) 모란이 新羅에 전해지게 된 상황이나 선덕여왕과 신라인의 반응을 고찰한 논문으로는 이운호, 「서라벌의 꽃나무 이야기」, 『숲과 문화』 10권 37, 2001.), 김창용, 「선덕여왕과 모란고사 고」, 『어문연구』 35집, 2010. 12.)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한 만큼 조락의 비애가 컸던 것이다. 唐代 여러 시인들은 모란을 보면서 화사함 이면에 담긴 영락의 슬픔도 주목하고는 자신이 처한 특별한 인식이나 신세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傷春의 시름과 연결된 작품, 화사함과 대비되는 자신의 신세를 자각한 작품 등 개인의 비애가 섞인 서정을 담은 작품들을 몇 수 살펴보기로 한다.

盛唐代 王維는 모란을 보면서 傷春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자연의 섭리와 궤를 같이 하는 시각으로 보인다.

「紅牡丹」(붉은 모란)

綠艷閑且靜 초록의 고운 잎이 한아하고 고요한데
紅衣淺復深 붉은 옷 꽃송이는 열다가 다시 짙어지네
花心愁欲斷 꽃의 마음 시름겨워 애간장 끊어지려 하니
春色豈知心 봄빛이 어찌 그 마음을 알아주리오

붉은 모란을 통해 惜春의 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모란의 녹색 잎과 광택을 통해 잎이 지닌 그윽한 품성을 찬양했고 이어 꽃이 피어남에 따라 짙어가는 붉은 색 외양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여 봄의 서정을 한껏 살렸다. 잎이 고요한 서경을 창출하며 배경을 이루고 있다면 꽃은 역동성을 띠며 감흥의 변화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화사함이 깊을수록 상춘의 시름도 깊어지는 법, 작자는 일시의 화사함 뒤에 이어지는 낙화의 슬픔을 연상하면서 꽃의 마음을 빌린 자신의 심정을 투사하고 있다.

令狐楚는 京城을 떠나갈 때 모란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소회를 남겼다.

「赴東都別牡丹」(낙양으로 부임하면서 모란과 이별하며)

十年不見小庭花 십 년 동안 작은 정원의 꽃을 보지 못하였는데
紫萼臨開又別家 붉은 꽃술이 막 피려할 때 또 집과 이별하네
上馬出門回首望 말 위에 올라 문을 나서며 고개 돌려 바라보니

何時更得到京華 그 어느 때 다시금 경성의 화려한 시절 이를 수 있을까
 唐 文宗 大和 3년(829)에 令狐楚가 東都 洛陽의 留守로 임명되어 長安을
 떠날 때 지은 작이다. 長安 집에 핀 모란화를 보면서 離鄉의 서글픔을 더욱
 진하게 느끼고 있다. 붉은 꽃술이 막 피려할 때 집을 떠나는 모습과 말 위에
 서 모란을 바라보며 좋은 시절을 회상하는 모습은 모란의 화려함과 좋은 대
 비를 이루며 서글픈 서정을 더하고 있다.

薛濤가 모란을 보며 한탄하는 다음 작품은 애정과 연계된 자신의 신세에
 대한 회한을 담고 있다.

「牡丹」(모란)

去春零落暮春時 봄이 흘러가며 꽃이 지니 봄이 저무는 시기로 구나
 淚濕紅箋怨別離 붉은 편지지에 눈물 적시며 이별의 한을 담아보네
 常恐便同巫峽散 언제나 무협의 꿈처럼 사라짐을 걱정하였는데
 因何重有武陵期 그 어떠한 연유로 다시 무릉에서 만날 기약을 할 수 있으리
 傳情每向馨香得 모란이 정을 전해올 때마다 그 향기를 맡게 되니
 不語還應彼此知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
 只欲欄邊安枕席 그저 바라기는 난간 가에 피어 잠자리를 편안하게 하고
 夜深閑共說相思 밤 깊으면 한가하게 서로의 그리움을 이야기 할 수 있기를

화사하게 피었다 지는 모란을 보면서 시인은 자신의 신세의식을 강렬하게
 떠올리고 있다. ‘紅箋’²²⁾은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을 상징하는 매개체요 이 속
 에 담은 내용은 눈물 젖은 이별의 한이다. 꿈같은 사랑을 뒤로 하고 사라져간
 ‘巫峽의 애정고사’²³⁾와 찾아도 실체를 알 수 없는 武陵에서의 기약을 언급한

22) 『蜀箋譜』에 “설도가 몸소 짙은 붉은 색 편지지를 만들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이를 일러 설도전이라고 하였다.(濤躬撰深紅小彩箋, 時謂之薛濤箋.)”라는 기록을 통해 薛濤가 자신의 개성을 살린 ‘薛濤箋’이라는 편지지를 만들어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23) ‘巫峽散’은 戰國時代 宋玉이 쓴 「高唐賦」에서 楚王이 꿈에 巫山 高唐의 神女와 雲雨의 情을 나누고 헤어진 애정고사를 언급한 내용이다.

것은 시인이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사랑의 성취를 은유한 내용이 된다. 이 때 실제로 등장한 모란만이 낙화의 우수와 그리움의 정서를 지닌 채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자신의 애정을 은유함에 있어 모란만한 투영체가 없다고 보았다. 어느덧 시인은 꽃을 보며 물아일체의 감정에 몰입하여 있는 것이다.

晩唐의 吳融은 표현할 길 없는 자신의 우수를 순결한 흰 모란의 자태로 치환하여 노래하기도 하였다.

『僧舍白牡丹』其一 (절에 피어난 흰 모란) 제1수

膩若裁雲薄綴霜 천연의 자태 마치 흰 구름이 마름질 한 듯 서리가 얇게 깔린 듯

春殘獨自殿群芳 봄이 다할 때도 홀로 끝까지 무리지어 향기를 발하고 있네
梅粧向日霏霏煖 마치 매화 장식한 미녀가 해를 향해 따스한 모습을 흘날리고

紈扇搖風閃閃光 흰 비단 부채 바람에 흔들며 햇살을 번득이고 있는 듯

月魄照來空見影 밝은 달이 비쳐 내려와 허공에서 그림자를 보이듯

露華凝後更多香 이슬 머금은 꽃 응어리진 후에 더욱 향기로워라

天生潔白宜清淨 하늘이 깨끗하고도 정결하게 낳아주었으니

何必慙紅映洞房 어찌 반드시 검고 붉은 꽃과 함께 동굴 안에 갇혀 있으리

흰 모란을 보면서 자신의 고결한 의지와 한을 표현해내고자 한 작품이다. 흰 구름이 마름질 한 듯 서리가 얇게 깔린 듯 하얀 자태를 머금고 있는 모란을 보면서 봄이 다할 때에도 지조를 지키며 향기를 발하는 존재로 보았다. 흰 모란은 대낮에도 환한 햇살을 받고 있는 미녀와 같이 아름답고,²⁴⁾ 밤에 달빛

24) 본문에 나온 '梅粧'은 『太平御覽』의 “宋武帝女壽陽公主，人日臥于含章殿檐下。梅花落公主額上，成五出花，拂之不去。……經三日，洗之乃落。”에서 나온 구절로, 宋 武帝의 딸 壽陽公主의 이마에 떨어진 매화꽃이 사흘 동안 붙어 있었다는 고사에서 연유한 것으로 매화로 단장한 미녀를 의미하는 표현이 된다.

이나 이슬을 머금어도 향기를 잃지 않는 존재이다. 하늘이 정결한 천성을 주었으니 雜花와 함께 동굴 안에 갇혀 있기에는 아까운 존재인 것이다. 모란의 희고 고운 자태와 고결한 품성을 논하면서 꾀적을 당하여 離鄉의 서러움 속에 있는 자신의 한을 서사하고 있는 것이다.

晚唐 李商隱도 回中(현 甘肅 固原)에 있을 때 모란이 비에 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을 표현한 바 있다.

「牡丹爲雨所敗」其二 (모란이 비에 지다) 제2수

浪笑榴花不及春 석류화가 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비웃지 말고
 先期零落更愁人 먼저 영락할 운명이라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근심 짓게 하네
 玉盤迸淚傷心數 옥쟁반에 흩어진 눈물 같은 빗방울은 상심을 드러내는 듯
 錦瑟驚弦破夢頻 고운 거문고 현의 놀라운 소리는 빈번히 꿈을 깨우는 듯
 萬里重陰非舊圃 만 리 무겁게 구름 끼어 있어 옛 곡강의 동산가 같지 않으니
 一年生意屬流塵 한 해의 생기가 흐르는 먼지 속에 있네
 前溪舞罷君回顧 前溪村에서 춤이 과한 뒤에 그대가 회고해보면
 并覺今朝粉態新 오늘 아침 꾸민 자태가 새로웠음을 깨닫게 되겠지

모란이 여름에 꽃을 피우는 석류를 보며 봄을 쫓지 못하는 점을 비웃어도 자신 역시 영락하는 신세에 있다는 표현은 시인이 깊은 염세주의에 빠져 있음을 드러낸다. 빗속에 피어 있는 모란의 자태는 옥쟁반 위의 눈물처럼 아름답고 내리는 빗소리는 서글픈 거문고 소리 같이 심금을 울린다. 시청각 효과를 동원하여 아름다움을 창출하고 있으나 그 속에는 특별한 비애가 담겨 있다. 시가의 후반부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이용한 서사를 도모하고 있다. 옛날 曲江의 동산에서 노닐던 추억은 이제는 먼지처럼 흘러가 버렸는데 南朝時代に 음악을 배우던 前溪村에서 춤이 과한 후에 지금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지금의 자태가 새로웠음을 깨닫게 되리라는 상상을 가하고 있다. 시인은 스스

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비탄에 잠기게 되리라는 감정의 추이를 예단하고 있는 것이다.

모란은 화려한 절정의 순간을 뒤로 하고 한순간에 사라지는 찰나의 아름다움을 지닌 꽃이다. 화사함을 지닌 만큼 아름답지만 이에 대비되는 슬픈 이미지도 이면에 지니고 있다. 시인들은 모란의 속성을 관찰하면서 강렬한 개화에 이은 조락, 화사함 이면에 감추어진 현실과의 괴리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융성했던 왕조가 쇠락해가는 현실이나 濟世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개인의 한계, 신세의 변화에 따른 비운의 감정 등을 노래하는 시문에서 모란을 활용하면 더욱 강렬히 서정을 표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모란은 唐代 시문 속에서 언제나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꽃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4. 위정자나 시류에 대한 풍자와 비판

모란이 唐代 황실의 사랑을 받으며 가치를 높여가고 그 이미지를 형성하여 갔다는 것은 모란과 위정자와의 관계, 모란과 치세와의 연관성 등을 생각해 보게 하는 부분이 된다. 게다가 꽃 중의 제왕이라는 칭송을 부여하며 비정상적일 정도로 애호를 가하는 唐代 모란 문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세인들에게 현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도 하였을 것이다. 白居易를 비롯한 中唐代 일부 시인들이 모란을 보면서 화사한 내면만 중시하고 실질을 잘 모르는 세태를 풍자했다면 晚唐代로 가면서 시인들은 이 꽃을 통해 거대한 풍우를 겪은 唐代 사회와의 연관성을 떠올리고 회고와 반성의 의식을 담기도 했던 것이다. 모란은 唐代의 번영을 반영한 꽃인 동시에 唐代의 시국을 비판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꽃이었다. 몇 편의 작품을 통해 모란을 통해 시국에 대한 우려감이나 시류 비판 의식을 담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王睿이 모란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유희와도 같은 이미지를 느끼고 있었다.

「牡丹」(모란)

牡丹妖艷亂人心 모란은 요염하여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나니
 一國如狂不惜金 나라 전체에서 미친 듯이 애호하며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曷若東園桃與李 어찌하여 동쪽 정원의 복사꽃과 오얏 꽃이
 果成無語自成陰 과실을 맺으면서도 묵묵히 그늘을 이루고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

모란이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는(亂人心)’ 존재가 되어 있음을 폭로한 작품이 된다. 세인들에 의해 찬사와 비판을 함께 받고 있는 桃李가 차라리 과실을 이룬다는 점에서 모란보다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비교의 의식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과열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모란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순수한 미감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翁承贊이 절에 핀 모란에 누구 할 것 없이 마음을 뺏기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쓴 작품을 보자.

「萬壽寺牡丹」(만수사 모란)

爛漫香風引貴游 모란은 찬란하고 향기로운 바람으로 귀인들의 노닐을 이
 끄니
 高僧移步亦遲留 고승들도 걸음을 옮겨 역시 이 꽃에 머물러 있구나
 可憐殿角長松色 가련하구나 불사 한 모퉁이의 오랜 소나무여
 不得王孫一舉頭 왕손이 한 번 고개 들어 바라봄도 얻지 못하나니

모란에 마음을 뺏겨서 노닐며 감상하는 세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았는데 귀인들 뿐 아니라 고승들도 유혹에 빠져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표현으로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다. 절 한 쪽에서 오랜 시간을 지키고 있는 소나무의 굳센 의지는 깨닫지 못하는 세태의 부족한 의식을 탄식하며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徐夔이 모란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사회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

「牡丹花二首」其二 (모란화 두 수) 제2수

朝日照開携酒看 아침에 꽃 피면 술병 잡고 가서 구경하고
暮風吹落繞欄收 저녁 바람 불어 꽃잎 떨어지면 난간을 돌며 거둔다
詩書滿架塵埃扑 시서로 가득한 서가에는 먼지만 들이치는데
盡日無人略舉頭 종일토록 머리 들어 바라보는 이 없구나

모란의 유혹에 빠져 본연의 의식을 내던지고 꽃만 감상하고 있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시서로 가득한 서가에 먼지가 들이쳐도 이에 대한 인식 없이 꽃의 화려함에만 눈을 돌리는 풍조는 시인으로 하여금 깊은 회한에 젖게 하는 요인이 된다.

白居易가 모란의 향기를 주제로 쓴 다음 시를 보면 모란이 지닌 다양한 특성과 이를 바라보는 시인의 풍유 의식이 담겨 있음이 발견된다.

「牡丹芳」(모란꽃 향기)

牡丹芳, 牡丹芳 모란꽃 향기여 모란꽃 향기여
黃金蕊綻紅玉房 황금 꽃술이 붉은 옥방을 터뜨리고 있네
千片赤英霞爛爛 천 조각 붉은 꽃잎마다 노을이 찬란히 비추고
百枝絳點燈煌煌 백 개의 가지에 붉은 점이 휘황찬란하게 불 밝힌 듯
照地初開錦繡段 땅에 비추니 비단 여러 자락이 열리는 것 같고
當風不結蘭麝囊 바람을 향하여 묵지 않은 난초 사향의 주머니 같구나
仙人琪樹白無色 신선의 옥 나무는 회고 색이 없고
王母桃花小不香 서왕모의 복사꽃은 작고도 향기가 없네
宿露輕盈泛紫艷 밤새 내린 이슬은 가벼이 차서 자주 빛 고운 모습 넘치고
朝陽照耀生紅光 아침 햇빛 비추니 붉은 광채를 발하네
紅紫二色間深淺 붉은색과 자주색 두 색깔이 깊고 얇은 차이를 두고

向背萬態隨低昂 등 돌리니 만 가지 교태가 아래 위를 따르네
 暎葉多情隱羞面 앞에 비친 다정함은 부끄러운 얼굴을 가리고
 臥叢無力含醉粧 꽃떨기에 힘없이 누워있으니 취한 화장을 머금었네
 低嬌笑容疑掩口 애교 띤 웃는 얼굴을 내리어 입을 가릴까 하니
 凝思怨人如斷腸 사람을 원망하는 생각이 영기어 애가 끊어지는 듯
 濃姿貴綵信奇絕 농염한 자태와 귀한 채색이 참으로 기이하니
 雜卉亂花無比方 잡풀과 어지러운 꽃은 비할 바가 없구나
 石竹金錢何細碎 석죽과 금전화는 어찌 가늘게 부서지나
 芙蓉芍藥苦尋常 부용과 작약은 괴롭게도 항상 찾네
 遂使王公與卿士 마침내 왕공과 경사를 부리어서
 遊花冠蓋日相望 꽃놀이하는 관리들의 거마가 매일 서로 바라보겠네
 庫車軟輿貴公主 낮은 수레에 부드러운 연은 귀한 공주요
 香衫細馬豪家郎 향기 나는 소매에 날씬한 말은 부호의 낭군일세
 衛公宅靜閉東院 위공 李靖入택은 고요하여 동쪽 집을 단았고
 西明寺深開北廊 서명사는 깊어서 북쪽 겹채를 열었구나
 戲蝶雙舞看人久 노는 나비가 쌍쌍이 춤추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지 오래고
 殘鶯一聲春日長 남은 피꼬리 한 소리에 봄날이 길기만하다
 共愁日照芳難駐 모두 근심 중에 해가 비추니 향기가 머무르기 힘드니
 仍張帷幕垂陰涼 이에 휘장을 펴서 그들의 서늘함을 드리운다
 花開花落二十日 꽃 피고 꽃 떨어지기 이십일이니
 一城之人皆若狂 온 성안 사람들 모두 미친 듯 하네
 三代以還文勝質 삼대 이래로 문채를 내용보다 좋게 여기니
 人心重華不重實 인심은 화려함을 중히 여기고 내실을 중히 여기지 않네
 重華直至牡丹芳 화려함을 중히 여기는 모란의 향기이니
 其來有漸非今日 그것이 천천히 오게 됨은 오늘날의 일이 아니로다
 元和天子憂農桑 원화 천자는 농사와 뽕 길쌈을 걱정하고
 恤下動天天降祥 아래 사람을 근심하니 하늘을 움직여 상서로움을 내리도다

去歲嘉禾生九穗 작년에는 좋은 벼씨가 아홉 이삭을 생산하였어도
 田中寂寞無人至 밭 속이 고요하여 오는 이가 없어 적막하였다
 今年瑞麥分兩歧 금년에 상서로운 보리가 양쪽으로 나누어지니
 君心獨喜無人知 군왕의 마음이 홀로 기쁜 것을 아무도 모르리
 無人知, 可嘆息 아무도 모르니 가히 탄식하리로다
 我願暫求造化力 나는 원컨대 조화옹의 힘을 구하여
 減卻牡丹妖艷色 문득 모란의 요염한 색을 줄이고자 하네
 少回卿士愛花心 경사의 꽃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 돌려
 同似吾君憂稼穡 우리 임금처럼 곡식을 심고 거두는 근심을 함께 하였으면

모란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시도한 시가이지만 이 시에 달려있는 “훌륭한 천자는 농사를 걱정한다.(美天子憂農也.)”라는注를 통해 백거이가 모란의 묘사를 통해 위정자의 책임을 지적하고 농사를 걱정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전체 시는 내용에 따라 3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락은 처음부터 “부용과 작약은 괴롭게도 항상 찾네(芙蓉芍藥苦尋常)”까지인데 모란의 아름답고 화려한 자태와 환상적이면서 고결한 품성, 다른 꽃을 압도하는 존재감 등을 서술하였다. 두 번째 단락은 “마침내 왕공과 경사를 부리어서(遂使王公與卿士)”에서 “그것이 천천히 오게 됨은 오늘날의 일이 아니로다(其來有漸非今日)”까지로 볼 수 있는데 왕공과 귀족들이 모란을 귀히 여기고 그 화려함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외면의 화사함만 볼 뿐 내면의 가치는 볼 줄 모르는 풍조를 탄식한 내용이다. 세 번째 단락은 “원화 천자는 농사와 뿔 길쌈을 걱정하고(元和天子憂農桑)”부터 끝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하여 군신은 농사를 중히 여기고 백성의 질고를 걱정하는 마음을 지닐 것을 권유하고 있다. 白居易의 여러 풍유시처럼 이 시 역시 시폐에 대한 지적과 풍자를 가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제를 떠올릴 정도로 모란은 唐代의 문화와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물이요 키워드가 된다. 적당한 감상과 애

호의 정도를 넘어서 광풍의 경지를 달리게 하는 모란 애호 열풍은 모란의 가치를 오히려 반감시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모란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감정을 담은 작품들은 모란이 지닌 진정한 가치를 아쉬워하면서 화려하게 번성했던 唐朝를 회상하거나 모란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픈 시인의 마음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역설적으로 말해서 모란의 상징성이 그만큼 컸음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IV. 결어

본문을 통해 唐代 형성된 모란 문화를 생각해보고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의 시가를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唐代 모란 관련 시가의 다양한 내용과 특징을 대략적으로 고찰해보았다.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에는 모란을 제재나 소재로 한 작품이 132수, ‘牡丹’이라는 어휘가 263개나 등장하고 있어 唐代의 중요한 꽃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모란은 『詩經』이나 『楚辭』와 같은 초기 문학작품에서부터 언급된 꽃이 아니었고 唐代 들어와서도 盛唐을 기점으로 주목을 받게 된 꽃이다. 모란을 노래한 작품들은 모란의 화사한 자태나 향기에 대한 주목이나 이 꽃을 연상시키는 인물에 대한 칭송, 唐代에 성행했던 모란 문화에 대한 기술이나 시선의 언급, 영락하는 모란의 특성과 결부한 비애감이나 개인의 신세의식 표출, 모란을 통해 위정자나 시류를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모란을 노래한 시가가 지닌 내용이나 주제는 큰 틀에서 다른 꽃이 지닌 미감이나 효용과 비슷한 맥락을 지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모란은 唐代를 대표하는 꽃이라는 점에서 다른 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상징성과 권위를 지닌다. 풍성한 외관과 화려한 이미지를 통해 미인으로 형상화되면서 봄의 화사함을 드러내는 꽃으로 주목을 받으면서도 동시기 桃李나 杏花 같은 꽃이 가지기 어려운 ‘花王’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고, 군자의 품성을 갖고

고결한 이미지를 발산하는 ‘梅蘭菊竹’의 기품에 버금가는 존귀한 존재감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비슷한 외모로 오래전부터 회자되던 芍藥의 위상을 뛰어넘어 國花의 반열을 차지하기도 하였고, 시대에 따라 내용과 풍격을 달리하며 唐代의 흐름을 대변하는 꽃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모란은 비록 다른 화목보다 문헌에 늦게 등장하였고 『全唐詩』와 『全唐詩補編』에 실린 빈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세간에서 ‘花中之王’의 영예를 얻었다는 것은 이 꽃이 다른 꽃들과 구별되는 매력과 존재감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唐代를 이해하는 중요한 문학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상징물로 손색이 없는 꽃인 것이다.

參考文獻

-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60.
- 陳尙君, 『全唐詩補編』, 北京: 中華書局, 1992.
- 趙慧文, 『歷代詠花草詩詞選』, 北京: 學苑出版社, 2005.
- 孫洙 編, 陳婉俊 補注, 『唐詩三百首』 北京: 中國書店, 1991.
- 劉 鈇, 『詠花古詩欣賞』, 北京: 語文出版社, 1999.
- 徐曄春, 『觀花植物千種經典圖鑑』, 吉林: 吉林出版集團, 2012. 11.
- 金 波, 『花卉寶典』, 北京: 中國農業出版社, 2006. 1.
- 기태완, 『花情漫筆』, 서울: 고요아침, 2007.
- 권영한, 『재미있는 나무이야기』, 서울: 전원문화사, 1997.
- 강관권, 『나무열전』, 과주: 술향아리, 2007. 8.
- 박상진, 『우리나무의 세계』, 서울: 김영사, 2011. 1.
- 박경하, 『우리나라 나무이야기』, 서울: 이비락, 2004. 3.
- 손광성, 『나의 꽃 문화 산책』, 서울: 을유문화사, 1996.
- 程 杰, 「論中國文學中杏花意象」, 江海學刊, 2009. 1.
- 杜貴晨, 「全唐牡丹詩概觀」, 銅仁學院學報, 2015. 3.
- 鄒 巖, 「牡丹折射下的唐代社會文化心態」, 北京: 北京林業大學學報, 2008. 9.
- 楊 靜, 「唐宋牡丹詩與牡丹文化」, 荷澤: 荷澤師專學報, 2002. 8.
- 路成文, 「唐宋牡丹詩詞的主題嬗變及其歷史文化內涵」, 閩江學刊, 2009. 6.
- 李 暉, 「唐京城牡丹事象考索与反思」, 榆林學院學報, 2015. 9.
- 楊艾明, 「唐代詠洛陽牡丹詩研究」, 哲學文史研究, 2016. 제10기.
- 신정수, 「모란의 중국 표상」, Journal of Korean Culture, 제20집, 2012. 5.

Abstract

A Study on the Symbols of the peony poem in 『Quantangshi』

Bae, Daniel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tudy the various symbols of the Peony in Tang Dynasty poetry by survey 『Quantangshi』. Various symbols of the Peony in 『Quantangshi』 are summarized as that :

The first, the Peony flowers have the purest beauty in itself and they are the forerunners of spring, it means that the peony full of expression of beauty and dignity, and the poetry of peony are generally expressed the symbol of beauty and the harbinger of spring.

The second, Tang Dynasty and the poetry of peony have abundant influencing relationship. The social background at that time has a great effect on the prosperity of peony poem.

The third, the poetry of peony are sometimes used of the expression of human will, sorrow. The Peony also have the destiny of rise and fall, and the properties easily caused its dignified appearance and memory. Cause of that point, man like the generic character of that flower. So, the peony were open expressed as intense of man and sorrow of life in Tang Dynasty.

The fourth, the poet of peony poem often take critical estimate about the aspect of Tang Dynasty and social phenomenon. This means that peony poem already have the function of social reflection.

Key words: peony, symbols in poetry of peony, Quantangshi, the expression of flowers, sense of beauty, ancient chinese poetry, flower, poetry of Tang Dynasty.

투 고 일 : 2017. 4. 10. / 심 사 일 : 2017. 4. 15. ~ 2017. 5. 15. / 게재확정일 : 2017. 5. 20.